특집논문 ▮ 『항도부산』 제43호, 2022. 2, 217~249 DOI : https://doi.org/10.19169/hd.2022.2.43.217

기와로 본 부산 만덕동사지의 성격*

최 정 혜**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기와의 종류와 특징
Ⅲ. 기와의 제작시기
Ⅳ. 기와의 조합양상과 위계
Ⅴ.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사찰인 만덕동사지 출토 기와를 통해 유적의 창건과 폐사시기, 사격(寺格) 등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만덕동사지는 부산박물관의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금당지・회랑지・계단지・추정 강당지・배수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서 다량의 기와를 비롯하여 도자기・토기・도기・석제유물 등이 검출되었다.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기와는 기종에 따라 명문기와・막새・연목기와・치미・귀면문장식기와・용두・잡상・암키와 수키와 등으로 구분된다.

사찰의 명칭과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비사(祇毗寺)명문기와는

* 본 논문은 '만덕동사지와 고려시대 부산불교문화' 학술지포지엄(2021년 7월 2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 때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임시수도기념관 관장 / hey6506@korea.kr

분석결과 기비사는 역사문헌에 보이지 않지만,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명금동향완의 명문을 통해 고려시대에 실존하였던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막새와 암막새는 고려 초기부터 고려후기까지의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며, 지붕마루를 장식하는 치미・용두・잡상・귀면문장식기와는 고려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형식이다.

만덕동사지는 명문기와를 통해 볼 때 기존에 알려진『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 기록된 만덕사가 아니라, 고려 중기에 삼중대사가 주지로 주석하였던 기비사임이 분명하다. 막새의 형식적 특징으로 보아 사찰의 창건 시기는 고려초기인 10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려 말 내지 조선 초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덕동사지는 사찰의 규모를 포함하여 치미가 황룡사지 출토품과 크기가 유사하고 용두・잡상 등이 지붕 장식기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고려왕실 관련 사찰에 버금가는 위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기비사명문기와, 금산사명금동향완, 수막새와 암막새, 마루장식기와, 위계

Ⅰ. 머리말

만덕동사지[1]는 부산의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폐사지로[2], 부산박물관에 의해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3] 1차와 2차 발굴조사는 축대 아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당지・회랑지・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는 축대 위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축대 아래 건물지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지와 3동의 건물지가 검출되었다. 3동의 건물지는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건물지의

1) 부산 만덕동사지의 공식 명칭은 만덕사지이다. 그러나 필자는 만덕사지의 사명(寺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산 만덕동에 위치하는 사지라는 의미에서 부산 만덕동사지라고 부르고자 한다.
2) 만덕사지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호(1976.06.26.)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3)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부산 만덕사지』, 1993;『부산 만덕사지Ⅱ』, 1998. 복천박물관,『부산 만덕사지Ⅲ』, 2007.

바닥에는 전돌이 깔려 있었다.

3차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기와・도자기・토기・석제유물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유물은 기와이다. 도자기는 청자와 분청상감이 주류를 이루며, 토기는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 일부와 고려시대 도기가 출토되었다. 기와는 암키와 수키와, 명문기와, 수막새와 암막새, 치미, 연목기와, 잡상, 용두, 귀면문장식기와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다.

만덕동사지는 건물지의 규모나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범어사와 버금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사찰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으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보이는 만덕사와의 관련성・창건시기・부산지역 사회에서의 위치 등에 대해 불투명한 점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론적인 작업으로써 현재까지 이루어진 만덕동사지의 발굴성과를 참고하고, 출토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와 분석을 통해 사지의 창건과 폐사 시기・사명・사찰의 위상 등 만덕동사지가 갖는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만덕동사지의 역사적 성격과 가치뿐만 아니라 사찰의 정확한 규모와 사격(寺格)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기와의 종류와 특징

만덕동사지에서는 지붕에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명문기와에는 사명(寺名) 및 불교 관련 내용이, 수막새와 암막새는 시기에 따른 다양한 형식이 확인되었다. 마루에 사용하는 기와로는 치미・용두・잡상・귀면문장식기와・마루수막새・적새가 출토되었고, 그밖

에 지붕의 처마가 ㄱ자 모양으로 꺾여 있는 회첨골에 사용하는 타원형 수막새와 서까래에 사용하는 연목기와도 검출되었다. 그리고 기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암키와와 수키와는 중판과 장판의 타날 문양이 시문된 형식이다.[4]

1. 명문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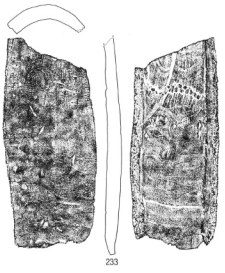
만덕동사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로는 기비사(祇毗寺), 송선사(松善寺), 북천□(北天□), 서면(西面), 동(東), 면(面), 삼보(三寶), 불방(佛房), □정(□正) 등이 있다. 사명과 관련되는 기와는 기비사와 송선사명문기와가 있으며, 수키와와 암키와에 명문을 새긴 형태이다. 이 중에서 기비사명 기와(사진1-1~5)[5]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사진1-1~2는 무문의 수키와와 암키와 외면(外面)에 기비사명을 타날한 형식으로, 수키와와 암키와에 각각 다른 타날판을 사용하였다. 사진1-3은 기비사조(祇毗寺造)를 타날하였는데, 기비사에서 기와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사진1-4는 기비사와 차륜문이 복합된 형태이며, 사진1-5의 명문기와는 기비명만 이중의 마름모 형태 안에 새긴 것이다.

기비사에 대한 기록은 역사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나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金山寺)명향완(사진2)에서 기비사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산사명 향완 대부의 하단부에 은입사로 돌아가며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명문은 금산사 향완을 주조하는데 기비사 주지 삼중대사 혜거가 동량(東梁)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이다(구민정

4) 기와의 분류와 명칭은 김성구(1992)의 분류방법을 따랐으나, 암키와와 수키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평기와로 표기하였다.

5) 기비사명문기와는 1차에서 3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모두 조사되었으며, 30여점 이상이 확인되었다.



1.기비사명 수키와

2. 기비사명 수키와

3. 기비사명 암키와

4. 기비사명 암키와

5. 기비명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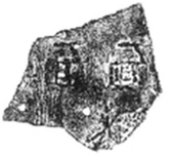
6. 송선사명 암키와

7. 복천○명 암키와

8. 불방명 수키와

9. 서면명 암키와

10. 동명 암키와



11. 면명 암키와

12. ○명 암키와

13. ○정 일휘문암막새

14. 간평명 전돌

<사진 1> 1~13.명문기와, 14.명문전돌

<사진 2> 금산사명 향완

<사진 3> 송선사지의 건물지와 명문기와

2003).[6] 이 향완은 고려시대 때 삼중대사 혜거가 주지(住持)로 주석하였던 기비사가 실존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기비사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기비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동래현조에 지금의 만덕고개를 기비현(其比峴)이라고 지칭하는 지명이 나온다. 기비(其比)는 기비사(祇毗寺)의 음사(音寫)로 생각되며, 기비사는 조선시대 당시에 이미 폐사 되었으나 고려시대 구포에서 동래로 넘어가는 만덕고개에 위치했던 기비사의 영향으로 기비현으로 불려 졌던 것으로 추정된다(최정혜 2004).

송선사명문기와(사진1-6)는 3차 발굴조사에서 1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으며, 명문은 수키와와 암키와의 외면에서 확인된다. 명문은 어골문의 중앙 횡대에 새겼으며, 모두 동일한 타날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은 세로로 새겨져 있으며 송선사 이외에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6) 금산사명향완의 명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정18년(1178)무술 오월 일에 만들다. 금산사 미륵대전에 청동향완 한구를 놓았다. 총 중량은 30근이며 은이 8량 들었다. 동량스님은 기비사 주지 삼중대사 혜거 금산사대사 인미이다. 개경에 사는 낭장 김영후와 처 최씨가 발원하였다. 전전 상승부 동정 강신이 은입사하고 고정이 주조하였다. 높이는 28리이며 구경은 35리이며 저경은 29이다(大定十八年戊戌五月 日造金山寺彌勒大殿前靑銅香垸壹具一座道重二十斤 八銀八兩東梁祇毗寺住持三重大師惠琚金山寺大師仁美京主人郎將金令候妻崔伊次加女納絲殿前上乘府承旨同正康信鑄成高正高二八糎口徑三五五糎底經約二九).

없다. 발굴조사 당시에는 만덕동사지의 사명이 기비사에서 송선사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7] 그러나 2007년 11월에 금정산 기슭에서 송선사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시민 제보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선사가 따로 있음을 확인하였다(최정혜 2009). 송선사지(사진3)는 만덕동사지에서 직선거리로 1km정도 떨어진 금정산 자락에 위치하며, 여기서 건물지의 초석과 다량의 송선사명문기와・연화문수막새・당초문암막새가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만덕동사지에서 출토 된 송선사명문기와는 만덕동사지에서 보수기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1-7은 현 사찰에서 실시한 배수로 공사 때 채집한 유물로 선조문을 상하로 배치하고 중앙에 북천□명을 새겼는데, 마지막 자는 암(庵)로 추정되며 1점만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명과 관련된 명문기와 이외도 방위나 면 관련되는 내용이 새겨진 기와도 출토되었다. 사진1-9은 복합문 가운데 서면(西面)의 명문이 있으며, 사진1-10은 동(東)만 확인된다. 사진1-11은 파손이 심하여 전체를 알 수 없으나 면(面)은 확인된다. 방위나 면에 관련되는 명문기와는 동래고읍성지와 동평현성지 그리고 기장고읍성지에서도 확인된다.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기와도 2점이 확인되었다. 사진1-12은 ○보(○寶)명이[8], 사진1-8은 무문수키와의 외면에 명문을 타날한 형태으로 내용은 불방(佛房)으로 추정된다.

---

7) 사진1-1~3의 기비사명문기와는 고려전기에 해당되며, 송선사명문기와는 고려후기 속하는 형식이다.

8) 보(寶)는 고려시대 사원에서 재정의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던 기구이다. 보에는 국왕의 안녕을 위한 축성보, 관인유력층의 개인수복을 위한 장년보, 불교경전 간행을 위한 대장보가 있었으나 가장 보편적인 보는 제사형태인 기일보였다(한기문 1998). ○보명문기와는 보자만 확인이 가능하여 어떤 형태의 보가 운영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만덕동사지에서 보가 운영되었음은 확인 할 수는 자료이다.

한편 수키와와 암키와 이외에 일휘문암막새와 전돌에 음각으로 명문을 새긴 것이 2점 출토되었다. 일휘문암막새(사진1-13)의 명문은 □정(□正)로 추정되며, 전돌(사진1-14)명문은 세로로 간평(干平)을 새긴 형태이다. 이들 명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막새

만덕동사지에서 수키와와 암키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토된 기와는 막새이다. 막새는 종류와 형식에 따라 수막새 · 암막새 · 타원형막새 · 마루수막새로 구분된다.

수막새는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연화문수막새와 일휘문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연화문수막새는 단판연화문수막새(사진4-1~12)가 12종으로 가장 많으며, 복판연화문수막새(사진4-13~15)는 3종이 출토되었다. 중판연화문수막새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4-1~4의 단판연화문수막새는 신라와 통일신라형식이 혼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연판 내에 능선을 시문한 것은 신라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이며, 화판부보다 높은 주연부에 연주문을 장식한 형식은 통일신라수막새의 특징이다. 또한 사진4-3의 같은 형태의 연판과 간판을 시문한 형식은 통일신라후기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이다.

사진4-5의 연화문수막새는 꽃술대가 시문된 자방을 중심으로 능선이 음각된 연판을 8엽 배치한 형식으로 통일신라형식을 계승한 것이다. 사진4-6~7은 연자가 배치된 자방을 중심으로 12엽의 연판을 배치하거나, 부정형의 연판과 간판을 화판부에 시문한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고려시대에 유행하는 것으로 경주 및 영남지역, 중원지역 등지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사진4-7의 연화문수막새는 고려시대 동경(銅鏡)에서도 확인되는 연화문이다.

<사진 4> 1~15.연화문수막새 16.일휘문수막새 17~18.타원형수막새 19.마루수막새

사진4-8~10은 일휘문수막새의 영향을 받아 자방이 반구형으로 돌출된 형식이다. 사진4-8은 경주지역에서도 출토되며, 고려시대 범종에도 같은 형식의 연화문이 확인된다. 도4-9의 드림새에는 목리가 있는 것으

로 보아 목제와범을 사용하였으며, 검출된 16점에서 모두 목리가 확인되어 동범기와로 추정된다. 사진4-11~12은 저부조의 연화문수막새로 간판이 없는 형식으로, 간판이 없는 형식의 연화문수막새는 고려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성행한다.

단판연화문수막새에 비해 복판연화문수막새는 소량 출토되었다. 사진4-13의 복판연화문수막새는 연판 끝에 원형돌기를 장식하고 반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는 구상권이 배치되어 있다. 연판형태는 백제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을, 구상권은 삼국시대 연화문수막새의 형식적 특징을 갖는다. 사진4-14의 자방은 일휘문수막새의 영향을 받아 반구형을 이루며, 자방에 목리(木理)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목제와범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화문수막새는 모두 9점이 출토되었는데, 자방에서 모두 목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범기와로 판단된다. 사진4-15은 1점이 확인되었는데,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일휘문수막새(사진4-16)는 2점이 출토되었는데, 반구형돌기를 중심으로 2개의 원권을 배치한 형식이다. 주연에는 연주문이 장식되어 있다.

암막새는 당초문암막새・일휘문암막새・선조문암막새가 출토되었는데, 당초문암막새가 7종으로 가장 많다. 사진5-1~2의 당초문암막새는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한 형식으로 만덕동사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사진5-1이 사진5-2보다 고부조로 문양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사진5-3~5는 당초문을 간결하게 표현한 형식으로 개경 고려궁성이나 중원지역, 경주지역 등지에서도 비슷한 형식이 출토된다. 사진5-7과 사진5-8의 당초문암막새는 비슷한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만덕동사지에서만 확인된다.

일휘문암막새는 7종이 확인되었는데, 전형형식은 보이지 않고 변형형식만 출토되었다(최정혜 2020). 사진5-9와 사진5-10은 같은 형식으로

<사진 5> 1~8.당초문암막새 9~15.일휘문암막새 16~18.선조문암막새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형식은 경기 및 충청・강원지역 등지의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많이 확인된다(최정혜 2020). 특히 사진5-9의 드림새 자방에 목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목제와범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5-11의 일휘문암막새는 2점이 확인되었다. 드림새에 반구형돌기와 선조문을 시문하고 주연은 돌대로 표현한 형태인데, 이러한 형식의 주연은 전형일휘문막새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사진5-12의 일휘문암막새는 드림새 중앙의 화문을 중심에 두고 반구형돌기를 좌우대칭으로 배치한 형식이다. 주연은 이중의 돌대로 표현하고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사진5-13~15은 같은 형식의 일휘문암막새로 추정되며, 사진5-16~18은 드림새에 선조문이 시문되어 있다.

한편 사진4-14의 연화문수막새와 사진5-9의 일휘문암막새, 사진4-10의 연화문수막새와 사진5-12의 일휘문암막새는 드림새에 시문된 반구형자방의 형태와 태토, 소성상태, 크기 등으로 보아 암・수막새 세트기와로 추정된다. 연화문수막새와 일휘문암막새의 세트기와는 파주 혜음원지와 진도 용장성에서도 확인된다.

만덕동사지에서는 수막새와 암막새 이외에 타원형수막새와 마루수막새도 출토되었다. 사진4-17의 타원형수막새는 사진4-1의 드림새를 수키와와 사각으로 접합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사진4-18의 연화문은 사진4-2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타원형수막새는 지붕의 처마가 ㄱ자 모양으로 꺾여 있는 회첨골에 사용되어 회첨기와라고도 한다. 사진4-19의 마루수막새는 드림새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며, 1차와 3차에서 출토되었다.

3. 마루기와

마루기와로는 치미, 용두, 잡상, 귀면문마루장식기와, 적새가 출토되

었다.[9] 치미는 2차와 3차 발굴조사 때 출토되었는데, 2차에서는 치미의 하단부분(사진6-1)만 발굴되었다. 몸통은 굵은 돌대를 양쪽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연화문을 장식하였으며, 날개부분에도 단마다 연화문을 시문하였다. 치미는 성형의 안전성을 위하여 몸체를 상·하 분리하여 결합하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특히 하단부는 용마루에 즙와(葺瓦)를 용이하도록 반원형으로 제작하였다. 만덕동사지의 치미는 날개와 몸통에 연화문을 장식한 것으로 보아 신라양식을 계승한 형식으로 보인다(김유식 2019). 3차 발굴조사에서도 치미 편이 출토되었는데, 사진6-1과 같은 형식으로 추정된다.

귀면문장식기와는 2차와 3차 발굴조사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2차 발굴품(사진6-2)은 상단 부분이 결실되었으나 하단부의 수염이 선각으로 세밀하게 표현된 형태이다. 하단부가 반원형인 것으로 보아 마루장식기와로 판단된다. 3차 발굴품의 귀면문장식기와도 잔존 상태로 보아 사진6-2의 귀면문장식기와와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용두[10](사진6-3)는 현지 사찰에서 진행한 배수로 공사 때 출토된 것인데, 편만 출토되어 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용두는 현존하는 금동대탑(사진8)이나 청동팔각탑(사진8), 불화(사진9) 등을 통해 볼 때 보통 내림마루나 추녀마루를 장식한 기와로 추정된다.

잡상은 모두 6점이 확인되었는데, 1차와 2차 발굴조사 및 배수로 공사 때 출토되었다. 모두 조형(鳥形)으로 추정되며, 사진6-4-①~③은 눈이 앞으로 크게 돌출되고, 입을 크게 벌린 형상이다. 머리 뒷부분에는

9) 마루수막새도 마루장식기와에 속하는데 막새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마루수막새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막새에 속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루기와로 분류할 수 있다.

10) 용두는 용의 머리를 형상화하여 지붕의 내림마루나 추녀마루를 장식하는 기와로 추정된다. 보통 내림마루의 하단이나 귀마루의 상단에 잡상과 함께 설치된다. 그러나 치미나 취두 대신에 용마루의 양쪽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잡상은 토우 형태로 내림마루에 주로 장식되며, 용머리·새 등의 형태가 있다.

1. 치미

2.귀면면장식기와

3. 용두

①

②

③

④

⑤

⑥

4. 잡상

<사진 6>[11] 1. 치미 2.귀면문장식기와 3.용두 4.잡상

<사진 7> 금동대탑 (호림박물관)

<사진 8> 청동팔각탑 (용인대박물관)

<사진 9> 미륵하생경변상도 (일본 지은원)

날개가 표현되어 있다. 사진4-4-④~⑤의 잡상은 부리가 긴 형태이며, 사진6-4-⑥은 닭의 형태로 머리의 볏과 입 주위의 턱살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잡상도 현존하는 금동대탑이나 청동팔각탑 등을 통해 볼 때 추녀마루의 장식기와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치미, 잡상, 용두, 귀면문마루장식기와는 마루수막새와 함께 마루를 장식하는 기와이다. 마루장식기와는 아니지만, 마루를 쌓아 올리는 적새도 출토되었다. 적새는 장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가장자리를 자르는 등 형태가 다양하며, 뒷면에는 포흔(布痕)이 남아 있다.

4. 연목기와

연화문연목기와(사진10)는 4점이 확인되었는데, 3차 발굴조사 때 동쪽 계단지에서 출토되었다(사진11). 연목기와는 가운데 원형의 못 구멍이 있으며, 못 구멍을 중심으로 4엽의 연화문을 배치한 형식이다. 4점 모두 동범기와이다.

11) 치미와 귀면문장식기와는 잔존부분을 토대로 하여 복원한 것이다.

<사진 10> 연목기와

<사진 11> 연목기와 출토 상태

5. 평기와(사진12)

만덕동사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이다. 1차와 2차 발굴조사 때에는 장판타날판을 사용한 평기와가 대부분 출토되었으며, 타날문양은 선문, 사격자문, 어골문, 복합문 등이 확인된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장판타날판을 사용한 평기와와 중판타날판을 사용한 선조문 및 사격자문 평기와도 함께 출토되었다.

Ⅲ. 기와의 제작시기

만덕동사지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막새와 암막새, 명문기와, 치미, 용두, 잡상, 귀면문마루장식기와, 연목기와, 타원형수막새, 마루수막새, 적새, 수키와와 암키와 등 다양한 종류의 기와 형식이 출토되었다. 기와는 시기에 따라 사용되는 기와 종류도 다르며 또한 같은 종류의 기와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만덕동사지 출토 기와를 최근 연구 성과를 참고로 하여 제작시기와 편년, 변화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사진 12> 1~3.중판타날문평기와 4~10.장판타날문평기와

편년작업은 다양성이 풍부하고 변이가 많은 수막새와 암막새 드림새의 시문 문양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막새 제작방법이 고려시대 이후 어느 정도 정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인 특징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의 기와연구 성과로는 막새문양이 시·공간적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명문기와는 시기를 판정할 수 있는 연호나 간지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문타날 및 제작방법 등 최근 연구 성과를 참고 하였다. 치미・용두・잡상・연목기와・귀면문마루장식기와는 제작방법과 문양・타 유적의 출토사례와 비교하였으며, 출토 량이 가장 많은 수키와와 암키와는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제작방법과 타날 문양의 특징적인 속성을 선정하여 편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분석관점과 자료를 통해 검토한 결과 만덕동사지 출토 기와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기로 편년 할 수 있다.

1. 1기(10세기전반 ~11세기중반)

1기에 속하는 기와는 사진4-1~5・13의 연화문수막새와 사진5-1~2의 당초문암막새, 타원형막새(사진4-17~18), 마루수막새(사진4-19), 치미(사진6-1), 귀면문마루장식기와(사진6-2), 연목기와(사진10), 기비사명문기와(사진1-1~3), 사진1-8의 불방명문기와, ○보명문기와(사진1-12), 중판타날문평기와(사진12-1~3), 선조문장판타날문평기와(사진12-4・8) 등이 있다.

사진4-1~4의 연화문수막새는 신라와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한 형식이며, 이중에서 사진4-1이 자방과 연판의 배치형태・간판 등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아 가장 이른 형식으로 추정된다. 사진4-3의 연화문수막새는 연판과 간판이 같은 형태로 이러한 형식은 통일신라 후기에 성행한다. 사진4-4는 간판이 생략된 형식이며, 사진4-13의 복판연화문수막새는 백제와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한 형식이다.

1기에 해당하는 연화문수막새는 신라연화문수막새와 백제연화문수막새 그리고 통일신라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진4-17의 타원형수막새는 사진4-1의 연화문수막새 드림새와 같은 형식이므로 1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진4-18의 타원형수막새는 사진4-2의 드림새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4-19의 마루수막새는 마루수막새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하며 고려전기까지 제작되는 것으로 보아 1기로 편년이 가능하다. 사진5-1~2의 당초문암막새는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하였으나,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좌우대칭의 전형적인 당초문암막새와는 구별된다.

용마루를 장식하는 치미와 귀면문마루장식기와도 1기에 편년할 수 있는데, 치미는 신라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치미는 중형의 크기로 일체형으로 제작되며 보주문이나 연주문 등이 시문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만덕동사지 출토 치미는 몸통이 분리・제작되었으며, 신라시대 치미에 많이 장식하는 연화문이 몸통과 날개에 시문되어 있다. 귀면문마루장식기와는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수염 등의 표현방식으로 보아 통일신라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귀면문이 시문된 수막새・암막새・마루기와・사래기와 등이 성행한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는 개경 고려궁성 및 충주 정토사지, 원주 법천사지 등 일부 유적에서 출토되고, 고려중기 이후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목기와도 1기로 편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은 부여 금강사지에서 확인된다. 통일신라말기와 고려 초기에 4엽의 연화문수막새가 유행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영향으로 4엽의 연목기와가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최정혜 2019).

명문기와는 기비사명 기와 중 사진1-1~3의 기비사명문기와, 불방명문기와, ○보명문기와를 1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진1-1과 사진1-8은 무단식수키와에 명문만 타날한 형태인데, 무단식수키와가 유단식수키

와보다 선행하는 형식이다. 유단식수키와는 보통 11세기 중반 이후부터 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최태선・이인숙 2011). 또한 무문평기와에 명문만 타날하는 방식도 고려전기에 성행하는 형식이다.

지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키와와 수키와 중에서 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중판타날판의 선조문과 사격자문기와(사진12-1~3) 그리고 선조문 등의 장날타날판 기와(사진12-4・8)가 1기에 편년된다. 중판타날판은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한 타날방식이며, 고려시대 기와보다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고려전기에 성행하는 장판타날판의 선조문평기와(사진12-8)는 만덕동사지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동평현성지 최하층에서도 확인된다.

만덕동사지에서 출토된 1기 기와는 신라와 백제 그리고 통일신라양식이 혼재되어 공존하는 점이 특징이다. 즉 중판타날판의 선조문과 사격자문의 평기와가 확인되지만, 중판타날판과 접합된 막새는 출토되지 않는다. 만덕동사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연화문수막새(사진4-1)에 부착된 수키와는 무문의 고려기와이다. 또한 치미는 신라형식이며, 귀면문마루장식기와는 통일신라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연목기와는 고려 초기의 형식이다. 이러한 삼국와 통일신라의 양식과 형식적 속성이 혼재하는 양상은 만덕동사지 뿐만 아니라 중원지역의 10세기 전반 기와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최정혜 2019).

이상에서 살펴본 만덕동사지의 1기기와의 형식적 특징으로 본다면 1기는 고려 초기의 10세기 전반부터 고려기와의 형식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일휘문막새가 성행하고 유단수키와가 제작되기 전 단계인 11세기 중반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년을 근거로 본다면 만덕동사지는 통일신라 후기보다는 고려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덕동사지가 고려 초기 창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만덕터널 아래에 위치하는 당간지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만덕동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부산박물관에서 실시한 당간지주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때 통일신라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부산박물관 2016).

2. 2기(11세기후반~13세기중반)

2기에 속하는 기와는 사진4-6~8・14~5의 연화문수막새와 일휘문수막새(사진4-16), 사진5-3~8의 당초문암막새, 일휘문암막새(사진5-9~11) 등이 있다. 마루를 장식하는 용두와 잡상도 2기에 포함되며, 명문기와는 사진1-4~5의 기비사명문기와・서면명문기와・동명문기와・복천□명문기와・면명문기와도 본 단계에 편년할 수 있다.

사진4-6~7의 연화문수막새는 경주 황룡사지나 사천왕사지 등지에서도 확인되는 형식으로, 연자가 있는 자방・간략화 된 간판・연주문이 장식된 주연 등으로 보아 11세기 후반대로 편년이 가능하다. 사진4-8・14~15의 연화문수막새는 일휘문수막새의 영향으로 자방이 반구형으로 돌출된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12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성행하며 조선 전기까지 제작된다. 특히 사진5-8의 연화문수막새와 같은 형식은 황룡사지에서도 출토된다. 일휘문수막새는 전형형식에서 벗어난 변형형식이며, 유사한 형식이 여주 원향사지나 경주 황룡사지 등지에서 확인된다.

2기에 속하는 당초문암막새(사진5-3~8)는 드림새의 당초문이 앞 시기에 비해 간략화 되는 특징을 보이며, 주연부에 연주문이 장식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11세기 후반 대 이후로 편년 할 수 있다. 사진5-9~10의 일휘문암막새는 12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변형형식에 속하는 것이며, 충주 정토사지와 숭선사지・원주의 법천사지・거돈사지・경주 황룡사지・분황사지 등지에서 출토된다.

고려시대에 새롭게 제작되는 용두와 잡상도 2기로 편년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두와 잡상이 장식된 청동탑이나 불화 등을 통해 볼 때 11세기 후반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립연대가 확실한 혜음원지에서 용두와 잡상(사진13)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12세기 초에는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덕동사지 출토 용두는 편만 남아 있어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입 모양이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 한 것으로 보아 혜음원지 단계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잡상은 혜음원지보다 추상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아 혜음원지 보다 늦은 시기로 보인다.

<사진 13> 파주 혜음원지 출토 용두와 조형잡상

2기 명문기와는 명문 이외에 어골문이나 사격자문 또는 고려시대에 유행한 차륜문 등이 타날 되어있는데, 면이나 방위과 관련되는 명문기와는 만덕동사지 이외에도 동평현성지, 동래고읍성지, 기장고읍성지, 동래 온천동유적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만덕동사지 2기 기와는 통일신라양식의 요소가 잔존 내지 공존하는 1기 형식과 달리 고려형식의 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가 제작되

고, 고려기와의 독자적 형식인 일휘문막새・용두・잡상이 유행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기 시기는 고려형식의 기와가 정착화되고 새롭게 일휘문막새・용두・잡상이 제작되는 11세기 후반부터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기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단계인 13세기 중반까지로 편년할 수 있다.

3. 3기(13세기 후반~14세기 후반)

3기에는 사진4-9~12의 연화문수막새, 사진5-12~15의 일휘문암막새, 사진5-16~18의 선조문암막새, 송선사명문기와가 해당된다.

이 시기의 연화문수막새는 전체적인 고부조와 하트형연판(사진4-10), 반구형자방과 간판이 없는 화판부(사진4-9), 저부조의 화판부(사진4-12~13) 특히 사진4-12의 드림새와 수키와의 둔각 접합방법은 고려후기에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을 갖는 연화문수막새는 진도 용장성, 강화 선원사지, 영동 영국사 등 전국 각지의 고려후기 유적에서 확인된다.

사진5-12의 일휘문암막새는 사진4-10의 연화문수막새와 세트기와이며, 사진4-13~15는 반구형돌기를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휘문암막새의 반구형돌기는 조선시대 후기의 암막새까지 잔존하는데, 고려후기부터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3기는 고려기와 형식이 유지되면서 몽고침입 이후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기와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시기는 13세기 중반이후부터 14세기말까지로 편년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만덕동사지 출토 기와의 형식적 특징과 주변지역 출토품과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볼 때 만덕동사지는 고려 초기인 10세기 전반에 건립되어 고려말기 인 14세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12] 특

히 고려초기부터 말기까지 기와가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1차~3차 발굴조사 결과 특정 기와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만덕동사지는 고려초기부터 고려말기까지 개・보수를 거치면서 꾸준히 사세(寺勢)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Ⅳ. 기와의 조합양상과 위계

기와는 건물의 지붕을 덮은 건축부재로 눈과 빗물의 누수를 차단하고 목재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장엄(莊嚴)과 권위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가진 수키와와 암키와뿐만 아니라 건물의 의장(意匠)과 위상을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장식기와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장식기와는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주로 궁궐이나 관아, 사찰 등 주요한 시설에 이용된다.

건조물의 위상과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식기와는 사용 위치와 형태에 따라 수막새와 암막새, 연목기와와 부연기와, 귀면문장식기와[13], 치미, 취두, 용두, 잡상, 토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건축물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용되는 장식기와의 종류와 형식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만덕동사지 출토 장식기와의 조합양상과 특징 분석을 통해 사지의 성격과 위계(位階)를 검토하고자 한다. 장식기와 조합

12) 만덕동사지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고려말기까지 확인되나, 상감분청사기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사지의 존속기간은 조선초기까지로 볼 수 있다.

13) 귀면문 장식기와는 마루에 사용하는 귀면문 마루장식기와와 서까래에 사용하는 귀면문 사래기와로 구분된다. 그러나 고려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귀면문장식기와는 완형이 드물어 구분하기 어렵다.

양상과 이를 통한 건물 위상과 성격에 대한 분석은 고려시대 궁궐이나 관아·사찰 등지에서 확인되는 장식기와 조합 사례와 최근 발굴 및 기와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만덕동사지에서는 지붕 처마에 사용하는 수막새와 암막새, 회첨기와

<표 1> 고려시대 주요 건물지 장식기와 조합 양상

기와종류 \ 유적명		부산만덕동사지	개경고려궁성	파주혜음원지	강화선원사지	안성봉업사지	원주법천사지	충주숭선사지	경주황룡사지	합천영암사지
막새	수막새	○	○	○	○	○	○	○	○	○
	암막새	○	○	○	○	○	○	○	○	○
	타원형 막새	○							○	○
	마루 수막새	○					○	○	○	
	모서리 암막새								○	○
서까래 기와	연목기와	○						○	○	
	부연기와								○	
마루 장식 기와	귀면문 장식기와	○	○	○		○	○	○	○	○
	치미	○	○	○		○	○	○	○	○
	취두			○	○				○	
	용두	○	○	○	○	○	◯		○	
	잡상	○	○	○	○	○	○		◯	○
	토수				○					

인 타원형수막새, 서까래에 사용하는 연목기와, 마루장식 기와인 마루수막새・치미・용두・잡상・귀면문마루장식기와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장식기와가 조합된 고려시대 건물지로는 개경 고려궁성・강화 선원사지・파주 혜음원지・안성 봉업사지・경주 황룡사지・충주 숭선사지・원주 법천사지・합천 영암사지 등이 있으며, 모두 고려왕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다.[14]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장식기와의 조합양상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 의하면 모든 유적에서 수막새와 암막새, 용마루를 장식하는 치미 또는 취두가 출토된다. 그리고 귀면문장식기와는 선원사지를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선원사지에서만 토수가 확인된다. 이들 장식기와 중 수막새와 치미는 삼국시대부터 그리고 암막새와 귀면문장식기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되었다. 귀면문장식기와는 경주를 중심으로 성행하는데, 경주지역 내에서도 특히 월성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확인되고 출토양도 많다(양종현 2012). 황룡사지에서는 고려시대 치미는 출토되지 않고, 취두편만 확인되었다. 이는 아마 신라 때 제작된 치미가 오래 기간 사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취두는 고려 중기이후에 사용된 것이다. 고려중기 이후 건립된 선원사지에서도 치미는 확인되지 않고 취두가 출토된다.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타원형수막새와 마루수막새・모서리암막새는 경주 황룡사지와 경주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부산 만덕동사지와 합천 영암사지에서 확인된다. 회첨기와로 사용되는 타원형수막새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까지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만덕동사지의 타원형수막새는 드

14) 개경 고려궁성은 고려의 정궁이며, 혜음원지는 고려의 행궁이다. 그리고 봉업사지와 숭선사지는 고려황실의 진전사원이며, 황룡사지・법천사지・영암사지는 고려왕실과 관련이 있는 사찰이다. 선원사지는 최우가 강화도에 건립한 사찰이다.

림새에 부착된 수키와와 드림새의 형식으로 보아 고려전기 형식으로 판단된다. 영암사지 출토 타원형수막새는 드림새에 부착된 수키와는 중판타날문으로 추정되나, 드림새의 문양이 통일신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려시대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만덕동사지와 영암사지에서 타원형수막새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에서도 회첨기와가 사용되었고, 또한 고려전기까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원형수막새는 경주지역에서도 동궁과 월지・황룡사지・분황사지・사천왕사지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특히 기린문타원형수막새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정한 성격을 갖는 위계가 높은 건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두와 잡상 그리고 토수는 고려시대에 새롭게 제작되는 장식기와이다.[15] 용두는 개경 고려궁성을 비롯한 혜음원지・선원사지・봉업사지・황룡사지 그리고 만덕동사지 등지에서 출토되며, 고려시대 청동탑이나 불화 등을 통해 볼 때 내림마루나 추녀마루 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는 내림마루끝 부분에 귀면문장식기와가 사용되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용두로 바뀌었을 것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귀면문장식기와는 고려전기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우에 의해 건립된 선원사지에서 귀면문장식기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해준다.[16]

잡상은 충주 숭선사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지에서 출토되며, 조형(鳥形)과 용두형(龍頭形) 등이 있다. 개경 고려궁성과 혜음원지에서는 조형이 확인되고, 황룡사지에서는 목을 길게 만든 용두형이 출토된다. 그

15) 용두, 잡상, 토수 등이 고려시대에 새롭게 제작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붕형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잡상은 추녀마루에 장식되기 때문에 팔작이나 우진각지붕에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다.

16) 귀면문이 장식된 기와로는 수막새, 암막새, 마루장식기와, 사래기와가 있다. 이러한 귀면문이 장식된 기와는 고려전기까지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최정혜 2020).

리고 만덕동사지 출토품은 새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조형으로 추정된다. 잡상도 용두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청동탑 등을 통해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추녀마루에 일직선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심예성 2020).[17] 숭선사지에서 잡상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숭선사에는 다른 왕실사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금동연봉와정을 사용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숭선사는 고려 광종이 모후를 위해 충주에 건립한 영당(靈堂)으로 일반적인 사찰과는 지붕장식도 달리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토수는 추녀마루 끝에 장식하는 기와로 선원사지에서만 출토되고 경복궁과 양주 회암사지 등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후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덕동사지가 건립되는 고려초기에는 통일신라의 영향으로 귀면문장식기와와 마루수막새・타원형수막새・연목기와・치미로 지붕이 장식되었다. 특히 치미는 신라시대에 유행하는 중형이 아니라, 황룡사지 출토 치미에 버금가는 크기로 보아 금당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18] 고려중기 이후에는 궁궐의 정전이나 사찰의 금당・강당 등 중심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잡상과 용두가 사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장식기와의 출토 유적과 그 성격, 유적에서 조합양상을 통해 볼 때 만덕동사지는 고려왕실 사찰에 버금가는 위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17) 심예성은 고려시대 장식기와 중 잡상을 위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를 잡상이 사찰의 금당이나 강당 그리고 고려궁성의 정전 등 중심 건물지에서만 확인되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18) 황룡사 치미의 크기는 182cm이며, 만덕동사지 치미는 약140cm(복원 크기)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3차에 걸쳐 발굴된 만덕동사지 기와 분석을 통해 기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사지의 창건과 존속기간・사명(寺名)・사격(寺格)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덕동사지는 고려 초기인 10세기 전반에 건립되어 고려말기 또는 조선 초기까지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초기부터 말기까지 기와가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발굴조사 결과 특정 기와가 어느 한 지점에서만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존속기간 동안 개・보수를 거치면서 꾸준히 사세(寺勢)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의 명칭과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비사명문기와를 통해 만덕동사지가 기존에 알려진『고려사』나『고려사절요』에 기록된 '만덕사'가 아니라 '기비사'임이 확인되었다. 기비사는 역사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명청동향완'의 명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 중기에 실존하였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만덕동사지에서는 건물의 의장(意匠)과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장식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지붕 처마에 사용하는 수막새와 암막새, 회첨기와인 타원형수막새, 서까래에 장식하는 연목기와, 마루장식기와인 치미・귀면문마루장식기와・용두・잡상 등이 그것이다. 수막새와 암막새는 사지의 존속기간 동안 다양한 형식이 제작되었으며, 연목기와・타원형수막새・마루수막새・귀면문마루장식기와・치미는 건립초기에 사용된 것이다. 특히 치미는 황룡사지 출토 치미에 버금가는 크기로 금당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중기이후에는 궁궐의 정전이나 사찰의 금당・강당 등 주로 중심 건물을 장식하는 용두와 잡상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장식기와가 조합된 고려시대 건물지로는 개경 고려궁성・강화 선원사지・파

주 혜음원지 · 안성 봉업사지 · 경주 황룡사지 · 충주 숭선사지 · 원주 법천사지 · 합천 영암사지 등이 있다. 이들 건물지는 고려황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덕동사지(기비사)는 건물 규모나 장식기와의 조합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려황실에 버금가는 위계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1. 발굴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 법천사지 』, 2009.
경기도박물관,『봉업사』, 200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분황사발굴조사보고서』,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개경 고려궁성』, 2008.
_____,『개경 고려궁성』, 200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혜음원지발굴조사보고서(1~4차)』, 2006.
동국대학교박물관,『강화 선원사지발굴조사보고서』, 2003.
동아대학교박물관,『합천 영암사지』, 1985.
목포대학교박물관,『진도 용장성 왕궁지 종합 발굴조사보고서』, 201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4.
부산박물관,『부산 만덕사지』, 1993.
_____,『부산 만덕사지 Ⅱ』, 1998.
_____,『부산 만덕사지 당간지주』, 2016.
복천박물관,『부산 만덕사지Ⅲ』, 2007.

2. 저서 및 자료

국립중원문화재연소,『중원의 와당』, 2017.
김성구,『옛 기와』, 대원사, 1992.
부산박물관,『부산의 기와』, 2015.
조원창,『고려사지와 건축고고』, 2016.

3. 논문

구민정, 「고려시대 향완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기민,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출토 기와」, 『부산기와』, 부산박물관, 2015.
김유식, 「한국 고대 치미의 변천과 전각형주자 발생」『동아시아 치미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부여박물, 2018.
심예성, 「고려시대 건물의 위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양종현, 「경주지역 신라시대 귀면문마루끝장식기와 고찰」, 『선사와 고대』 37, 한국고대학회, 2012.
윤나영, 「고려와 조선 잡상의 도상 변화 연구」, 『충북문화재연구』 6, 충북문화재연구원, 2011.
이인숙 · 최태선, 「평기와 용어 검토」, 『한국고고학보』 80, 한국고고학회, 2011.
최정혜, 「부산 만덕동사지 사명 고찰」, 『박물관연구논집』 11,부산박물관, 2004.
_____, 「부산 송선사지와 출토유물」, 『박물관연구논집』 16, 부산박물관, 2009.
_____,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기와」, 『부산기와』, 부산박물관, 2015.
_____,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 『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17.
_____, 「신라말 · 고려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중원지역 기와연구와 전환기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
_____, 「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 『2020 한국중세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
_____, 「고려시대 일휘문막새의 출현과 전개」, 『한국기와학보』 창간호, 한국기와학회, 2020.
_____, 「기와로 본 만덕동사지의 성격」, 『만덕사지와 고려시대 불교문화』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투고일 : 2021. 10. 19. 심사완료일 : 2021. 11. 22. 게재확정일 : 2021. 12. 07.

| Abstract |

The features of the Mandeok-dong Temple in Busan as a roof tile

Choi, Jeong-Hey

Based on the roof tiles excavated from the Mandeok-dong Temple remains, a representative Goryeodynasty temple in Busan, this study reviews the temple's general features, including how it was constructed and fell into ruins and its current status.

Three excavations by the Busan Museum identified sites of the temple's main building, the corridor, a staircase, a lecture hall, and the drainage.A large number of roof tiles, ceramics, earthenware, pottery, and stone artifacts were also discovered. The tiles, which made up a greater proportion of the relics, were classified into inscription tiles, roof-end tiles, rafter tiles, pheasant tail tiles, gargoyle tiles, dragon head tiles, small figure tiles, and concave and convex tiles.

An analysis shows that the Gibisa Temple inscription tiles, which apparently reflect the nam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mple, are not mentioned in the historical records. However, an inscription tile of Geumsan Temple's gilt bronze incense burner,currently housed in the Tokyo National Museum, confirms that the temple indeed existed during the Goryeodynasty. There are various forms of convex and concave roof-end tiles belonging to the early to the late Goryeoperiod, and the pheasant tail tiles, dragon head tiles, small figure tiles, and gargoyle tiles that decorate the roof ridge have a form exhibiting typical Goryeo-styl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inscription tiles, the Mandeok-dong Temple remainsare not

the Mandeoksa Temple recorded in *History of Goryeo* and *Essentials of Goryeo History*, but must be Gibisa Temple, where the monk Samjung presided as a Buddhist Master. Give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oof-ends, the temple must have been founded around the first half of the 10th century during the early Goryeodynasty, and probably existed until the late Goryeo or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heasant tail tilesfrom Mandeok-dong Temple remains are similar to the items excavated from the Hwangnyong Temple ruins,including their size, and given that the dragon head and small figure tiles were used as roof decorators, they must have had a status comparable to that of the temple closely related to the Goryeo royal family.

Key Words : Gibisa Temple inscription tiles, Geumsan Temple gilt bronze incense burner,convex and concave roof-end tiles, floor decoration tiles, status